



2019 보람청춘합창단 음악회가 9일 남부 뉴저지에 있는 체리힐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열렸다.

## 보람청춘합창단 음악회에 열띤 박수

2019 보람청춘합창단 음악회가 9일 오후 6시 남부 뉴저지에 있는 체리힐제일교회(담임 김일영 목사) 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날 보람청춘합창단은 합창 “저 구름 흘러가는 곳” “10월의 어느 날에” “향수” 등, 바리톤 주염돈의 독창 “가고파” 등, Dr. Joanne Erwin의 첼로 독주, 테너 조상범의 독창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소프라노 장진아와 테너 조상범의 듀엣, 김재설, 김준석, 정성학, 차형원으로 구성된 남

성중창단의 “평화의 기도” 등으로 진행됐다. 금번 음악회의 지휘는 장진아 집사가, 반주는 박진욱 사모가 담당했다. 음악회에는 출연자의 가족들과 체리힐제일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열띤 박수로 출연자들을 격려했다.

보람청춘합창단(단장 전풍근 장로, 지휘자 장진아 집사, 반주자 이상화 집사)은 체리힐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연로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체리힐제일교회는 “생활 전선에서 은퇴한 나이

가 많은 성도들이 여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양 강좌 및 취미와 문화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람학교(교장 이창열 장로, 교감 최은혜 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람청춘합창단은 이 보람학교에서 합창을 배운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체리힐제일교회 보람학교는 매년 3월 초와 9월 초에 각각 13주 과정의 새학기 시작한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